

# 나의 추억은 책갈피에서 춤춘다

이제 다시 들춰보는 지난날 책속의 메모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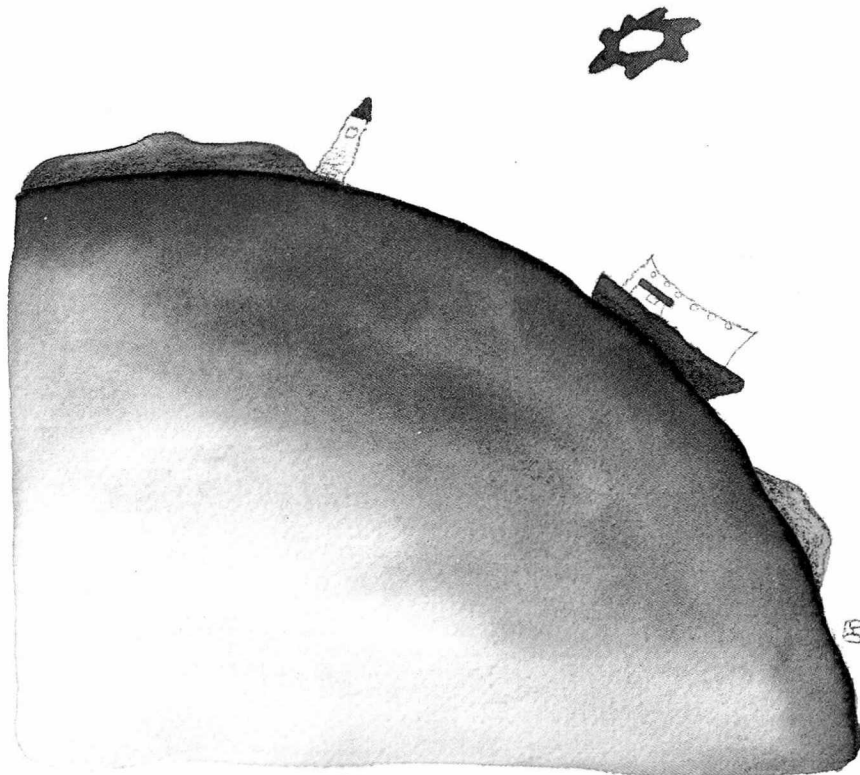
심상대  
소설가

나는 지난 시절 이리저리 떠돌아다녔기 때문에 책을 많이 잃어버렸다. 따라서 그 책 한권 한권에 얽힌 추억도 함께 잃어버린 셈이다. 아쉽지만 어쩔 수 없다. 세월이 흐르듯이 추억도 흐르고 흘러 결국엔 사라지고 마는 것이다. 내가 벌써 그걸 허용할 만한 나이가 되었다. 하지만 어찌다 오래된 책을 꺼내 펼쳐볼 때가 있다. 그럴 때면 그 책갈피에서 피어나는 냄새를 맡으며, 책장에 그어진 밑줄이나 속표지 한귀퉁이에 적힌 지난날의 내 글자를 발견하고서 남다른 감회에 젖어든다.

내게는 정비석 선생님이 쓰신 「소설작법」이라는 문고본이 한권 있다. 누가 탐낼 만한 책이 아닐 뿐더러 보잘것없이 작은 책이라서 아직 내 수중에 있는 것 같다. 이 오래된 책의 속표지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다.

“영동 고속도로를 질주하며, 경부선 철로 위의 연착한 야간 열차에 서서, 나는 이 책을 열심히 읽었다. 그 주옥 같은 시간의 결실이 어떤 맛대가리로 나타날 것인가? 1977년 12월3일 24시 5분 전 왜관 근방의 야간 열차속에서.”

논리적으로는 완벽한 문장이 아니지만 적당히 읽어들 만하다. 1977년은 내가 고등학교 생활을 마친 해로 12월이라면 명년 봄의 졸업식만 남긴 때다. 나는 그때 이미 세편의 단편소설을 썼었다. 소설작법도 읽지 않고 습작을 시작한 셈이지만 곧 소설가가 되리라 낙관했던 미친 청춘이었다. 대구에 계신 어머니한테 가기 위해 차비를 마련했고 그 중의 여유 돈으로 서점에 들렀다. 서점 매장에 쪼그리고 앉아 값싼 문고본을 뒤적이다가 이 책을 발견했는데, 그때의 기쁨을 나는 아직도 간직하고 있다. 정가가 350원이니 내겐 어울리는 가격이었을 게다. 「소설작법」을 읽으며 대구로 갔다. 강릉에서 고속버스를 타고 서울로 가서 야간열차로 갈아타고 대구로 갔는데 왜 그런 호사스러운 행로를 택했는지 그 심보는 알 수 없다. 아주 열심히, 무릎을 치면서 「소설작법」을 읽었던 기억만이 남아 있다. 그래서인지 나는 그 여행이 끝난 뒤 곧장, 그날 야간열차에서 만났던 술취한 승객들의 행태를 소재로 하여 「술꾼들」이라는 단편소설을 썼다. 「술꾼들」은 얼마전 다른 여러편의 습작원고와 함께 쓰레기통에 처넣었는데, 며칠 지나지 않아



그걸 후회하게 됐다. 버릴 땐 그렇게도 터무니없어 보이던 것이 버리고 나니가 가까운 생각이 자꾸 든다. 그래서 나는, 또 쓰면 되지 뭐, 하고 나를 달랬다.

그 「소설작법」 속표지 한쪽에는 어떤 사람의 이름과 전화번호가 적혀 있다. 기억컨대 그것은 내가 어느 톨살롱에서 만난 전자오르간하는 사람의 전화번호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술집을 돌아다니면서도 이 책을 가방 속에 넣어 가지고 다녔던 모양이다. 실제로 그 뒤 서울에 올라와 문예창작과를 다닐 때 나는 그 사람의 소개로 얼마간 웨이터 생활을 했다. 그러다가 쫓겨났다. 남양동에 있는 그 톨살롱의 영업부장은 내가 학교에 다닌다는 사실과, 책을 들고 다니는 것이 아니꼬웠던 모양이다. 통 테이블을 주지 않고 빙빙 돌리며 청소만 시키더니 나중에는 인상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쫓아냈다.

또다른 책이 있다. 김현 선생님의 문학평론집 「책읽기의 괴로움」이다. 이 책의 속표지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다.

“훌륭한 詩人으로서의 金日成. 1985년 3월 6일.”

이 책을 살 때에도 재정상태가 형편없었다. 나는 군대에서 제대하자 두달 동안 네편의 단편소설을 썼는데 그게 다 보기 좋게 낙선했다. 그래서 오징어배를 타고 바다로 나갔다가, 돈을 벌기느라 여행이 죽지 않고 돌아왔을 때였다. 두타산 아래에 있는

돼지막을 개조한 방에 누워 책을 보라치면, 쌍용양회 동해공장에서 날아온 시멘트 가루가 눈구멍과 콧구멍과 목구멍을 콕 틀어막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한없이 캐캐거리곤 했다. 어떤 사람들은 왜 그다지도 가난했는지 의아해 하겠지만, 한번 부유해지면 여간해서는 가난해지기 힘들고 한번 가난해지면 좀처럼 부유해지기 어려운 게 세상살이의 일면이다. 가난이란 경제현상이라고보다는 운명이라는 생각이 때때로 든다. 가끔씩 가난은 인간의 영혼을 우주로 이끌어올리기도 하고 신의 침실로 안내하기도 한다. 하여튼 나는 그 시멘트 냄새 나는 방에 누워 밤새도록 책을 읽다가 해가 뜨면 잠자기 시작했고 석간신문 떨어지는 소리를 들으며 잠에서 깨어나곤 했다. 돈도 직장도 친구도 희망도 신념도 없던 시절이라 죽어라 책만 읽었다. 나중에는 읽을 책이 없어 할머니 농에 든 족보를 꺼내 읽기도 했다.

무슨 생각으로 그런 생각을 적어뒀는지는 생각나지 않아도 그때 생각으로는 김일성이라는 사람의 이모저모가 상당히 시적이라 생각했던 모양이다. 그런데 그 책은 무슨 돈으로 샀는지 모르겠다. 내가 구독했던 석간신문 구독료는 할머니가 개울가에 심었던 호박을 따다 판 돈으로 갚았다는 소리를 나중에 들었다.

「책읽기의 괴로움」을 사기 전에 나는 아주 극적으로 한권의 문고본을 산 적이 있다. 아쿠다가와 류노스케 선생님의 단편소설집

「나생문」이라는 책이다.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군대에서 제대하고 네편의 소설을 썼고 그게 다 떨어졌다. 그러자 돈을 벌 생각으로 오징어배를 탔다. 승선 계약을 하고 사무장으로부터 선금을 받았다. 어구와 침낭과 밑반찬 몇가지를 사서 배에 실어놓고 나머지는 진창만창 술을 마셨다. 진창만창이라 봤자 거렁뱅이나 다름없는 뱃사람들과 어울려 실내 포장마차에서 막걸리를 콜라를 섞어 마셨는데, 물론 여자도 있었다. 횡설수설하는 주인 여편네와, 한쪽 다리가 없는 불구의 노처녀와, 남편이 오징어배를 타고 나갔다는 젓통이 큰 아낙네였다. 불구의 노처녀는 술이 들어갈수록 히스테리컬해졌고, 젓통이 큰 아낙네는 얼굴은 반반했지만 손은 두쪽 다 바닷물에 부러터 조심해 만져도 거친 사포를 쓰다듬는 것 같았다. 내가 오줌 누러 가는 젓통 큰 아낙네를 따라나가 그 큰 젓통을 좀 주물럭거리다 들어왔더니 한쪽 다리 없는 노처녀는 목발을 두들기며 내게 막 신경질을 부렸다. 그날 밤 나는 거렁뱅이에 진배없는 동료 뱃사람을 따라 잠을 자러 갔는데 그곳은 고랑창가에 있는 동해시 거지들의 합숙소였다. 나는 뒤돌아 도망쳐 여인숙에 갔다. 아침에 친구가 와서 숙박료를 치른다고 거짓말을 하고서 운동화를 맡기고 잠을 잤고, 아침에 일어나 슬리퍼를 신고 도망쳤다. 도망치는 길에 서점에 들러 아쿠다가와 선생님의 소설집을 샀다. 아쿠다가와 선생님이 알면 기뻐할라는지 슬퍼할라는지 나는 짐작할 수 없다. 그 책의 속표지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다.

“나는 지구 위에서 멀미를 느낀다. 그래서 바다로 나간다. 만선을 기다려라.”

“봄을 샀다. 그러나 받기하지 않았다.”

그 시절에 비한다면 지금의 내 형편은 많이 좋아진 셈이다. 그러나 그때가 나빴다는 말은 아니다. 술도 마셨고, 알지 못하는 아낙네의 젓통도 만졌고, 그러면서도 책을 읽었으니 문화적으로 비교한다면 지금보다 그때가 더 낫다. 그때보다 못하긴 못해도 그래도 오늘 나는 또다시 책을 읽어야 한다. 이 여름이 가기 전에 몇권의 책을 읽어둬야지 길고 긴 겨울밤이 닥치더라도 서러워하지 않고, 오늘 읽었던 책장을 들춰보며 산다는 것을 생각할 게 아니냐.